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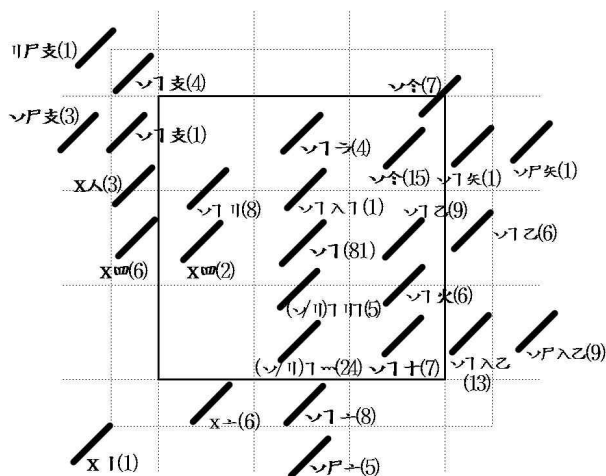
(별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의 점토석독구결과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의 관련성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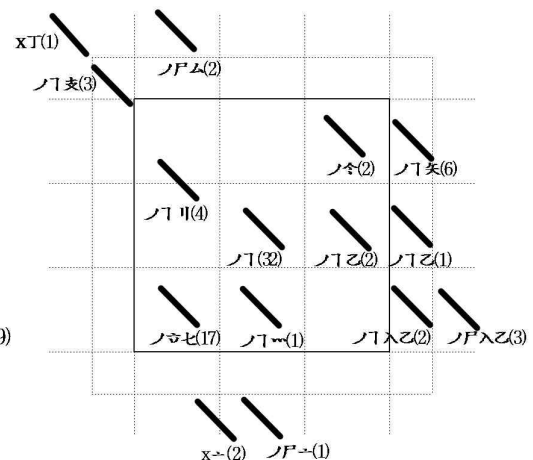
장경준(고려대)

단점 형태를 제외한 나머지 구결점들의 가치는<sup>1)</sup> 대체로 그 구결점이 놓이는 위치의 단점의 가치를 뒷부분에 포함한다. 다시 말해 단점 이외의 구결점의 가치는 앞부분( $\alpha$ )과 뒷부분( $\beta$ )의 합인 ' $\alpha+\beta$ '로 표현할 수 있으며,  $\alpha$ 는 그 구결점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고  $\beta$ 는 해당 위치의 단점이 지니는 가치가 반영된다.<sup>2)</sup> 따라서 단점 이외 구결점의 해독은 단점의 가치( $\beta$ ) 파악을 바탕으로 하되 형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alpha$ 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단점 이외의 형태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사선과 역사선의 추정 점도는 다음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그림 4> 『유가사지론』 권66의 사선 점도



<그림 5> 『유가사지론』 권66의 역사선 점도

사선과 역사선의 점도에 반영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선과 역사선의  $\alpha$ 는 각각 ‘ㄷ’[ᄃ], ‘ㄴ’[ᄂ]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방향에 따른 ‘ㄷ:ㄴ’[ᄃ:ᄂ]의 대립이 포함되어 있다.<sup>4)</sup> 단, ‘ㄷ’는 사용 환경에 따라 ‘ㅌ’[ᄌ]나  $\emptyset$ 로 바뀔 수 있고, ‘ㄴ’[ᄂ]은 ‘ㄷ’[ᄃ]으로 바뀔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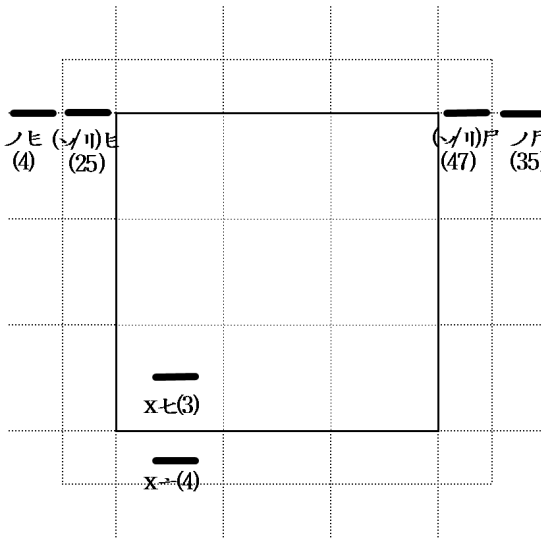
- 1) 본고에서 ‘구결점의 가치’는 ‘구결점이 나타내는 일정한 소리 내지 문법적 기능’을 가리킨다.
- 2) <그림 3>의 점도에 보이듯 단점의 가치( $\beta$ )는 하나 이상의 구결자로 표현되고 1음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점 이외의 구결점은 그 가치가  $\alpha + \beta$ 로 구성되므로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구결자에 대응되고 음가도 1음절 이상이다.
- 3) 이런 점에서 단점은 무표적이고 단점 이외의 형태는 유표적인 속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구결의 커다란 특징 중의 하나이다.
- 4) ‘: / ’의 대립은 문법적으로는 선어말어미 ‘-오-’의 음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기준 사각형 바깥쪽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이 구분되며 ‘1:尸’의 대립을 반영한다. 따라서 ‘+’로 표시되는 먼 곳의 사선과 역사선은  $\alpha$ 가 각각 ‘ㄷ 1’, ‘ㄴ 1’에서 ‘ㄷ尸’, ‘ㄴ尸’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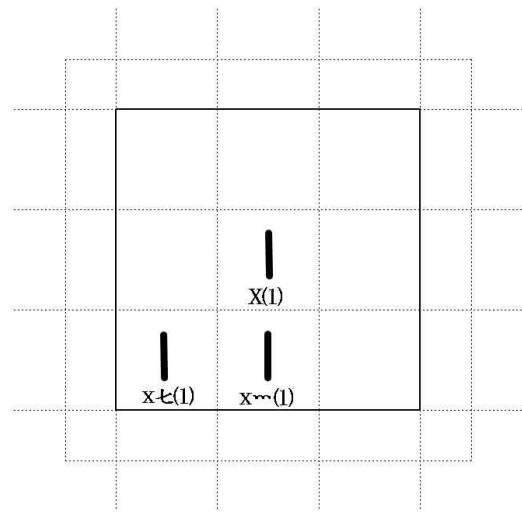
셋째, 예외적으로 33과 24 위치는  $\alpha$ 에 ‘1’이 포함되지 않고, 24와 45 위치는  $\beta$ 가 단점과 무관한 ‘ㅅ’와 ‘ㅅ乙’을 취한다.<sup>5)</sup>

넷째, 변별 위치의 구획이 기본적으로 <그림 2>의 확장형을 따르지만, 부분적으로는 인접한 위치들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선 점도에서 11 위치와 21 위치, 31 위치와 32 위치, 34 위치와 35 위치, 52 위치와 53 위치 등이 그러하다.

다음으로 수평선과 수직선의 추정 점도는 다음 <그림 6>, <그림 7>과 같다.<sup>6)</sup>



<그림 6> 『유가사지론』 권66의 수평선 점도



<그림 7> 『유가사지론』 권66의 수직선 점도

수평선은 기준 사각형의 윗면에서 바깥쪽으로 대칭을 이루면서 나란히 놓이는 11~21(-), +11~21(-)과 15~25(-), +15~25(-)의 쌍이 특별하다.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 $\alpha+\beta$ ’의 패턴에서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11~21와 15~25 위치의 수평선들은  $\alpha$ 나  $\beta$ 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sup>7)</sup> 위치 정보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11~21 위치는 ‘ㅅ’[ㄴ]로, 15~25 위치는 ‘尸’[ㄷ]로 표현할 수 있고, 각각 기준 사각형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이 구분되어 ‘ㅅ:尸’[ㅎ:호]의 대립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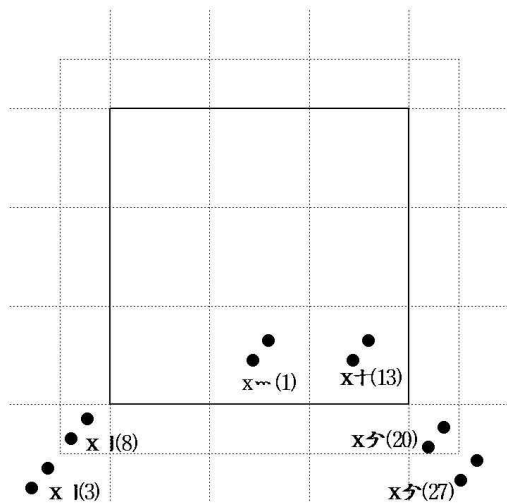
5) 위에 기술한 기본적인 패턴을 따르자면 33(/), 24(/), 45(/), +45(/)의 값치는 각각 ‘ㄷ 1 1’, ‘ㄷ 1 ㅅ’, ‘ㄷ 1 ㅅ’, ‘ㄷ尸 ㅅ’로 예상되지만 실제 점도에는 ‘ㄷ 1’, ‘ㅅ ㅅ’, ‘ㄷ 1 ㅅ乙’, ‘ㄷ尸 ㅅ乙’로 표현된다.

6) <그림 6>의 수평선 점도에서 11~21(-)과 15~25(-)의 가치를 기록하는 방안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1) 점도에 ‘ㅅ’, ‘尸’로 기록하고 해독안에서 필요에 따라 ‘ㅅ’나 ‘ㅅ’를 보충하는 방안, (2) 점도에 ‘ㅅㅅ’, ‘ㅅ尸’로 기록하고 해독안에서 필요에 따라 ‘ㅅ’를 ‘ㅅ’나  $\emptyset$ 로 대체하는 방안, (3) 해독안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펴 점도에 ‘(ㅅ/ㅅ)ㅅ’, ‘(ㅅ/ㅅ)尸’ 등으로 기록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1)을 취하여 따라 각각 ‘ㅅ’, ‘尸’로 기록해 왔었는데, 본고는 잠정적으로 사선, 역사선의 점도와 마찬가지로 (3)을 취하여 ‘(ㅅ/ㅅ)ㅅ’, ‘(ㅅ/ㅅ)尸’로 기록하였다. 앞으로 판독안-점도-해독안의 관계, 단점과 사선/역사선 및 나머지 형태들의 관계, 권66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권차에서 발견되는 데이터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방안이 가장 나은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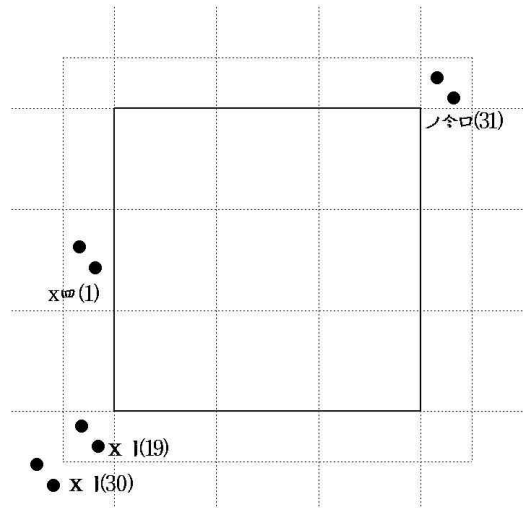
7) 수평선이라는 형태 정보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 $\alpha$ )는 이 자료의 데이터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이 무엇이든 11~21, 15~25 위치에서 반영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곳은 단점의 점도에 구획된 위치들 사이의 경계선에 해당하고 그 경계를 공유하는 단점들의 가치( $\beta$ )와 무관하다.

단, ‘ㄴ’은 사용 환경에 따라 ‘ㄴ’[이]나 0로 바뀔 수 있다. 이들의 가치가 위치 정보로 결정되는 것은 단점의 속성에 가깝고,<sup>8)</sup> 각각의 위치 내부에서 ‘ㄴ:ㄴ’[호:호]의 대립을 보이는 것은 사선/역사선의 방향에 따른 대립 양상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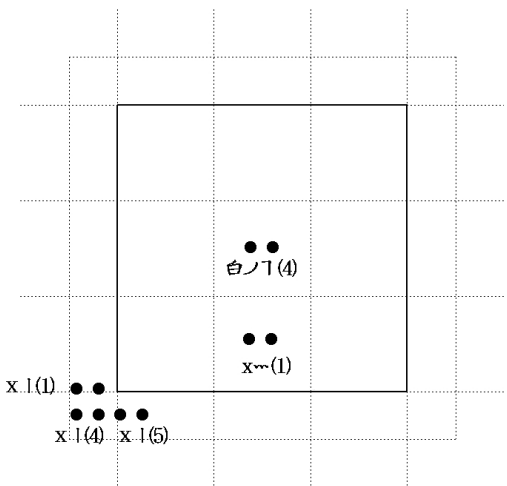
수평선의 나머지 두 위치와 수직선이 기입된 세 위치는 용례의 빈도가 너무 적어서 권66의 자료만으로  $\alpha$ 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그림 8>부터 <그림 14>까지 제시한 쌍점, 눈썹, 느낌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15(·), 15(·\), 33(·)이 각각 ‘ㄴ ㅅ ㅁ’, ‘ㄴ ㅅ (ㄴ)’, ‘白 ㄴ 1’으로 해독될 수 있음을 비교적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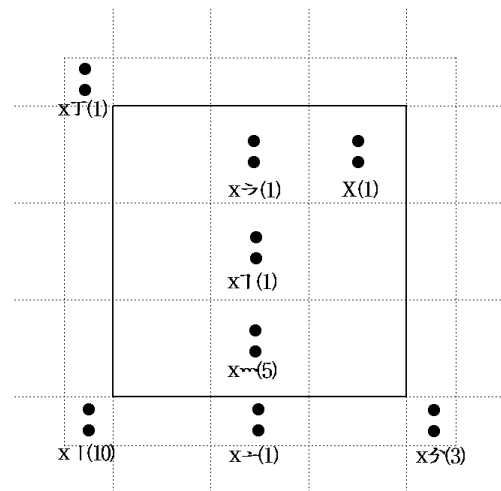
<그림 8> 『유가사지론』 권66의 사향쌍점 점도



<그림 9> 『유가사지론』 권66의 역사향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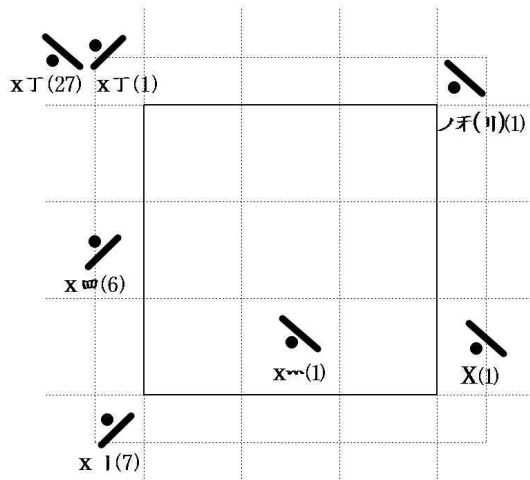
<그림 10> 『유가사지론』 권66의 수평쌍점 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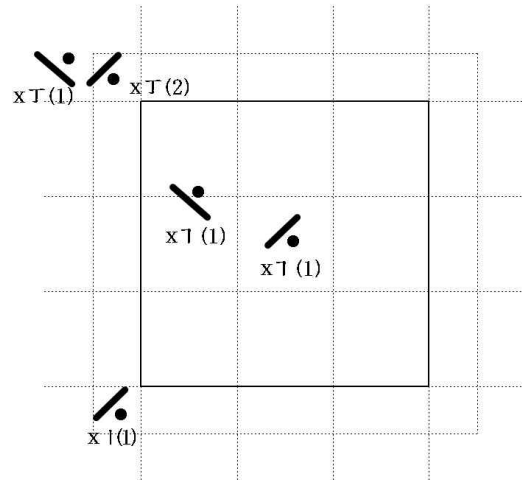
<그림 11> 『유가사지론』 권66의 수직쌍점 점도

8) 사선과 역사선의 경우 24 위치에서  $\beta$ 가 단점의 점도를 반영한 ‘ㄴ’[사]가 아닌 ‘ㅅ’[리]를 취한 것과 이 위치에서 가까운 15~25(-)의 가치가 ‘ㅅ’[리]인 것이 관련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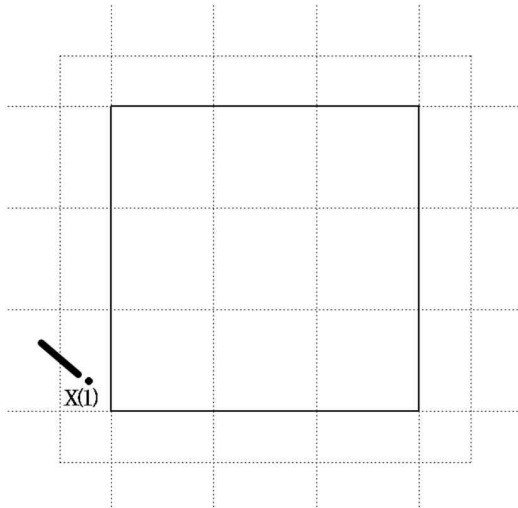
9) 15(·)의 경우 단점의 점도에 따르면  $\beta$ 가 ‘ㅅ’이지만 여기서는 ‘ㅁ’가 반영되어 있어  $\alpha+\beta$ 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는 15(·)와 대립되는 +15(·)가 없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현재의 점도는 확장형을 기반으로 표시한 것인데, 앞으로 15(·)의 변별 위치 구획이 기본형인지 확장형인지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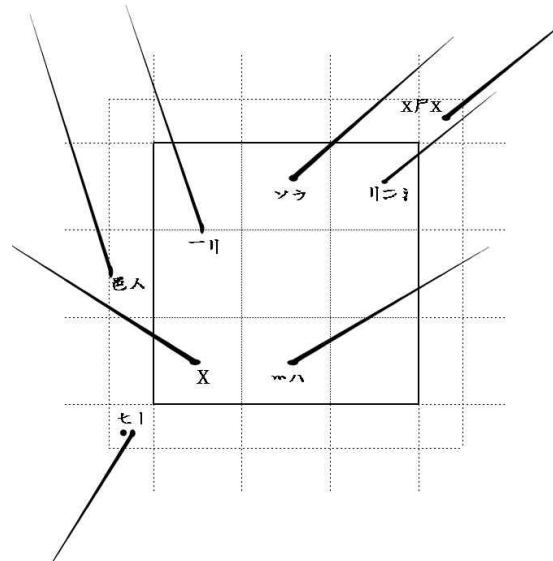
<그림 12> 『유가사지론』 권66의 눈썹 점도(1)



<그림 13> 『유가사지론』 권66의 눈썹 점도(2)



<그림 14> 『유가사지론』 권66의 눈썹 점도



<그림 15> 『유가사지론』 권3, 5, 8에 쓰인 빼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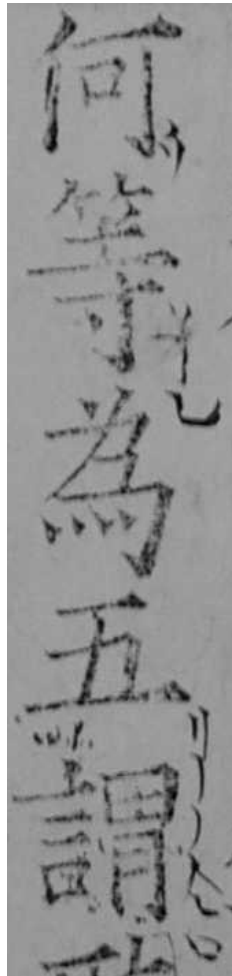
위에 제시한 점도 중에서 『유가사지론』 다른 권차의 점토석독구결과 비교하여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림 14>와 <그림 15>이다. <그림 14>에 표시된 느낌표는 다른 권차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형태이다. 유일레이기도 해서 역사선과 단점이 인접한 것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한편 <그림 15>는 다른 권차에서 발견되는 빼침선의 점도를 보인 것인데 권66에서는 용례가 전혀 없다.

이처럼 권66의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구결점은 그동안 보아 왔던 다른 권차와 대체로 비슷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어 앞으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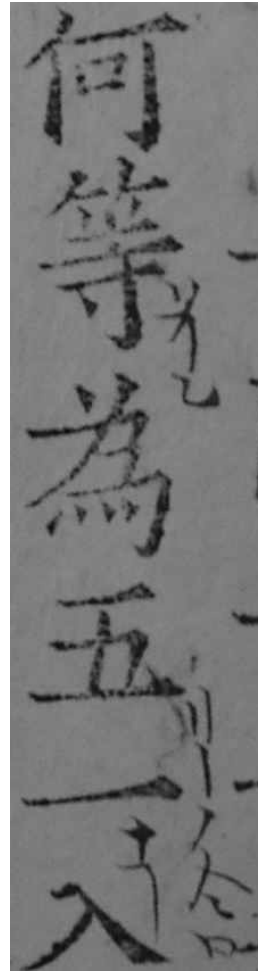
10) 이와 관련하여 권66 영인자료집에 실은 해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66의 점토(點吐) 개관”을 참조하기 바란다.

### 3.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와 권66의 점토의 관련성

결론적으로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과 권66의 점토석독구결은 매우 밀접한 관련 있다. 구결자로 토를 달았는데 구결점으로 토를 달았는데의 표기법적 차원의 차이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현토 양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다음 예를 보자.



<유가20 05:19>



<유가20 20:04>

<유가20 05:19>, <유가20 20:04><sup>11)</sup>

**A** 何等爲五 ?

**B** 何<sup>ㄴ</sup> 等<sup>ㄴ</sup> 一<sup>ㄴ</sup> 乙<sup>ㄴ</sup> {爲}五<sup>ㄴ</sup> 一<sup>ㄴ</sup> 一<sup>ㄴ</sup> 一<sup>ㄴ</sup> 一<sup>ㄴ</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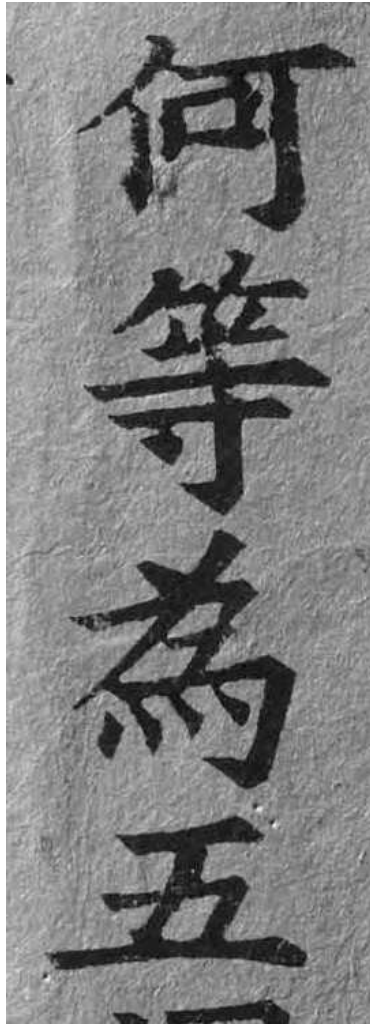
**C** 어누 다흔을 오이다호리고

**D** 何[<sup>ㄴ</sup> N,] 等[<sup>ㄴ</sup> V, 一 Et, 乙 J,] {爲}五[<sup>ㄴ</sup> V, 一 Ef, 一 V+Ep, 一 Et+N, 一 J,]<sup>12)</sup>

**E** 어떤 것들을 다섯이라고 하는가?

11) 『유가사지론』 권20의 **A**(원문), **B**(구결문), **C**(추정독음), **D**(형태분석), **E**(현대어역)은 장경준·오민 석·문현수·허인영(2015)에서 인용하였다(이하 같음).

12) 형태 분석 표지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이하 같음): V 용언어간, Ep 선어말어미, Ec 연결어미, Ef 종결어미, Et 전성어미, N 체언, J 조사, M 수식언(부사/관형사), R 판단 보류/기타



<유가66 11:19>



<유가66 16:10-11>

<유가66 11:19><sup>13)</sup>

R: 何等為五 ?

A: 何等為五[51(·),15(·.)]

B: 何等為五[ 丨,ノㄱㅇ ]

C: 何等 {爲}五( ㄱ )丨ノㄱㅇ

D: 무엇을 다섯이라고 하는가?

<유가66 16:10-11>

R: 何等為五 ?

A: 何等[34(/)]為五[51(·),15(·.)]

B: 何等[ ヌ 1 乙 ]為五[ 丨,ノㄱㅇ ]

C: 何等 ヌ 1 乙 {爲}五( ㄱ )丨ノㄱㅇ

D: 어떤 것을 다섯이라고 하는가?

13) 『유가사지론』 권66의 R(원문), A(판독안), B(구결점의 대응구결자), C(해독안), D(현대어역)은 본고 각주 2)에 언급한 연구팀이 작성한 잠정 판독 및 해독안을 인용하였다.

光明想緣多光明以為境界如三摩  
呬多地中已說今此義中意辯緣法

<유가20 11:03-04>

解脫圓滿又隨次第已說三支謂聞  
正法圓滿涅槃為上首能熟解脫慧  
之成熟如是三支廣聖教義謂十種

<유가20 07:16-18>

<유가20 07:16-18>

**A** 又隨次第已說三支。謂聞正法圓滿、涅槃爲上首、能熟解脫慧之成熟。

**B** 又 次第<sup>ㄷ</sup> 隨<sup>ノ</sup> 已<sup>ᄃ</sup> 三支<sup>ㄹ</sup> 1 謂<sup>1</sup> 聞正法圓滿<sup>ㅅ</sup> 涅槃爲上首<sup>ㅅ</sup> 能熟解脫慧<sup>ㄷ{之}</sup> 成熟<sup>ㅅㄷ</sup> 說<sup>ㅅノ</sup> 1<sup>ㄴ</sup>

**C** 又 次第를 좇오 이의사 三支인 닐온 聞正法圓滿과 涅槃爲上首와 能熟解脫慧ㅅ 成熟과를 니르과온여

**D** 又 次第[ㄷJ,] 隨[ノM,] 已[ᄃM,] 三支[ㄹV, 1Et,] 謂[1Ec,] 聞正法圓滿[ㅅJ,] 涅槃爲上首[ㅅJ,] 能熟解脫慧[ㄷJ,]{之} 成熟[ㅅJ,ㄷJ,] 說[ㅅR,ノR, 1Et,ㄴR,]

**E** 또 차례를 따라 이미 세 가지 지인 이른바 문정법원만과 열반위상수와 능숙해탈혜의 성숙과를 말한 것이니,

<유가20 11:02-04>

**A** 又光明想、緣多光明以爲境界、如三摩呬多地中已說。

**B** 又 光明想<sup>1</sup> 多<sup>ㄹ</sup> 1 光明<sup>ㄷ</sup> 緣<sup>ㄴ</sup> 以<sup>ㅅ</sup> 境界 爲<sup>ㄴ</sup> 三摩呬多地<sup>ㄷ</sup> 中<sup>ㄹ</sup> 已<sup>ᄃ</sup> 說<sup>ㅅノ</sup> 1<sup>14</sup> 如<sup>ㅅ</sup> ㄴ<sup>1</sup>

**C** 又 光明想은 하인 光明을緣하아 써곰 境界 삼하리인여 三摩呬多地ㅅ 中아그 이의사 니르과온 다하다

**D** 又 光明想[1J,] 多[ㄹR, 1Et,] 光明[ㄷJ,] 緣[ㄴV, 3Ec,] 以[ㅅJ,] 境界 {爲}[V, ㄴV, ㅅEt+N, ㄹV, 1Et, ㄴR,] 三摩呬多地[ㄷJ,] 中[ㄹJ-, ㅅ-J,] 已[ᄃM,] 說[ㅅR,ノR, 1Et,] 如[ㅅV, ㄴV, 1Ef,]

**E** 또 광명상은 많은 광명을 연하여 그로써 경계를 삼는 것이니, 삼마히다지<sup>15)</sup>의 가운데에서 이미 말한 것과 같다.



<유가66 11:16-17>



(점토 채색 사진)

14) ‘說ㅅノ1’은 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유가>에만 두 번 나타난다. 원문의 내용상 이미 설하는 것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ㅅ’는 ‘~고자’의 뜻을 갖는 연결어미 용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명사구가 나열된 환경도 아니므로 조사의 용법으로 볼 수도 없다.

15) 삼마히다지(三摩呬多地)는 『유가사지론』 본지분(本地分)의 17지(地) 중 6번째 지로서 제11권~제13권에 들어 있다.

<유가66 11:16-17>

원문: 如前意地決擇緣起善巧中、已廣分別。

A: (如前意)地[42(·)]決擇緣起善巧[42(·)]中[44(·)]已[24(·)]廣[22~32(·)]分別[31(·),11(\),51(·)]<sup>16)</sup>

B: 如前意地[ㄷ]決擇緣起善巧[ㄷ]中[+]已[ᄃ]廣[ㄴ]分別[ㅅ, ㄴ ㅈ, ㅣ]

C: 前意地ㄷ 決擇緣起善巧ㄷ 中+ 已ᄃ 廣ㄴ 分別(ㅅ)ㅅ ㄴ {如}ㅈ(ㅅ)ㅣ

D: 前意地の 決擇緣起善巧 중에 이미 자세히 분별한 것과 같다.

E: 앞의 의지(意地)를 결택하는 연기의 교묘함[緣起善巧]안에서 이미 자세히 분별한 것과 같다.

위에 제시한 자료의 비교를 통해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 권20의 자토석독구결과 권66의 점토석독구결은 토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토구결과 점토구결로 크게 나뉘지만, 토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자토석독구결 자료 가운데 『유가사지론』 권20에서만 2번 관찰되는 ‘-ㅅ’의 특이한 쓰임이 권66의 점토구결에서도 확인된 사실은 유가사지론 계통 석독구결 자료의 동질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유가사지론』 계통의 자토구결과 점토구결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동질적임은 그동안 이루어진 다른 권차의 점토구결 자료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권66에서는 구결점의 체계나 부호의 사용에서 다른 권차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양상이 관찰되기도 하므로, 현토 양상의 측면에서도 앞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4. 맺음말

(생략)

#### 참고문헌

- 국립한글박물관(2018), 『초조대장경 유가사지론 권66 각필구결』, 국립한글박물관.  
권인한·김성주·문현수·안대현·이용·장경준·황선엽(2018), 「유가사지론 권66 점토석독구결 잠정 판독 및 해독안」, 공동연구 자료(미간행).  
남풍현(1993), 「고려본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연세대 국학연구원, 115-180.  
남풍현(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장경준(2007),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태학사.  
장경준·오민석·문현수·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태학사.  
장경준 편(2019), 「석독구결 자료 6종 전산입력본(sktot\_2019\_01)」, 구결학회/국어사학회 배포(미간행).

16) 유가사지론 자토석독구결에 “說ㅅ ㄴ ㅈ”와 “說ㅅ ㄴ”이 나온다. 점토석독구결에서도 유가사지론 권3 13:22-24에 31(·)이 뚜렷하게 보인다. 기존 강독에서는 31(·)을 해독에서 제외하였는데 수정해야 할 것이다.